

포캐스팅 & 예산 Forecasting & Budgeting

커머셜 전략 컨퍼런스 COMMERCIAL STRATEGY CONFERENCE



이동현
Alex Lee

JW 메리어트 동대문 총 지배인



이윤정
Yoonjeong (Kevin) Lee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 총 지배인



서태중
TJ (Taijoong) Seo

파르나스호텔 세일즈 & 마케팅 부문장



임정여
Anna Lim

HSMIA 한국 보드 멤버 & (주)호텔롯데
RM팀 RM담당 헤드매니저

롯데호텔서울 2층 에메랄드룸

23rd June 2023, LOTTE HOTEL, SEOUL KOREA



이희라, OTA Insight 한국 총괄 대표

이희라 OTA Insight 한국 총괄 대표는 서울의 영국 런던과 대한민국 서울의 여러 호텔에서 Revenue Management의 기초를 다지며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의 호텔들이 Revenue Management 문화를 업무에 도입하여 이를 통해 매출과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커리어는 런던의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 (IHG)에서 시작했으며 8년 동안 공항 호텔을 포함한 영국의 3개 IHG 호텔에서 Revenue Management 스킬을 배웠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JW 메리어트 서울의 RM 전략이사를 역임, 3년이지나 다시 IHG의 SEAK 헤드쿼터에서 한국 IHG 호텔의 전체 매출을 담당하는 RM 매니저로 근무하다 커머셜 디렉터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OTA Insight에서 대한민국 시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한국의 호텔리어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더 쉽고 스마트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동현, JW 메리어트 동대문 총 지배인

이동현 총지배인은 1996년 신세계 그룹 공채 4기로 입사, 계열사인 웨스틴 조선 서울 세일즈 마케팅 부서에 발령받은 것을 시작으로, JW Marriott 서울, 르네상스 호텔, W 호텔,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의 세일즈 마케팅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플라자 호텔에서 부총지배인을 거쳐,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수원의 총지배인이 되었다. 이어 한국 메리어트의 인사 책임자를 겸직하면서, 지금의 JW Marriott 동대문 스퀘어 서울의 총지배인을 역임 중이다.

이윤정,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 총 지배인



이윤정 총지배인은 올해로 호텔업 경력 24년 차 베테랑으로, 2000년 JW 메리어트 서울 객실 팀 개관 멤버로 호텔에 입문해 메리어트 시카고에서 프런트 팀 리더로 활약하며 국제적인 서비스 마인드와 문화의 다양성을 익히는 등 업무에 전문성을 더하였다. 또한 그는 그랜드 웨라톤 인천, 머큐어 앰배서더 서울 강남 쏘도베, 알로프트 서울 강남 등에서 객실 팀 오픈 멤버로 다양한 직무의 경험과 호텔 운영 노하우를 쌓은 후, 신라스테이에서 부총 지배인과 총지배인을 차례로 역임하며 그 역량을 발휘하였다.

아코르 브랜드 최초로 호텔과 레지던스의 결합 모델이면서, 국내 최초 인공지능을 탑재한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레지던스에 2018년 3월 프리 오픈 시점부터 합류하여 오픈 준비와 초기 안정에 집중하였다. 같은 해 7월 그랜드 오픈을 성공리에 진행되도록 기여하였고, 이후에는 노보텔 동대문이 마켓에 빠르게 정착되도록 호텔 서비스와 운영의 전반을 관리하며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그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총지배인에 선임되었으며, AI 서비스부터 다양한 객실과 식음 프로모션, ESG 경영에 이르기까지 최신 트렌드에 맞춘 기획들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 외 비즈니스와 레저시장을 폭넓게 아우르며, 다양한 세대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상품들과 서비스를 계속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의 다양성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MZ 세대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가족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보텔 동대문만의 경험과 특별한 즐거움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서태중, 파르나스호텔 세일즈 & 마케팅 부문장



서태중 부문장은 파르나스호텔을 첫 직장으로 입사한 이후 26년 동안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으며, 현재는 파르나스호텔이 운영하는 5성급 3개 호텔의 객실 및 연회 영업과 전사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음.

서태중 부문장은 IMF가 막 시작될 무렵 재경팀으로 입사하여 커리어를 시작한 이후 26년 동안 파르나스호텔에서 기획관리팀, 임대사업팀, 재무관리팀, 경영기획팀, 사업개발팀, 객실영업팀, 전략기획팀, 운영지원팀 등 다양한 부서에서 폭 넓은 경험과 인사이트를 쌓아 왔음. 입사하자마자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의 개관을 위한 임대시설의 구성과 유치를 담당하였으며, 재무구조 개선 시기에 자금 관리를 담당한 이후 기획 관련 부서에서 파르나스호텔로의 사명 변경, 나인트리 호텔 론칭 및 확장, 호텔 운영 계약, 객실 판촉 등의 주요 업무를 통해 호텔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과 운영에 대한 경험을 확장해 왔음.

서태중 부문장은 2019년부터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의 객실과 연회 영업 및 전사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어려운 시기에 다양한 시도를 통해 극복하려 노력하였으며, 2022년 7월에 개관한 파르나스 호텔 제주의 객실과 연회 영업까지 담당하면서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출 회복, 파르나스 호텔 제주의 인지도 확대, 파르나스호텔의 전사 브랜딩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호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임정여, (주)호텔롯데 RM팀 RM담당 헤드매니저

임정여 헤드 매니저는 2017년 롯데호텔 체인이 레비뉴 매니지먼트 문화를 처음으로 도입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호텔의 레비뉴 매니지먼트 문화를 조직 내 안착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주)호텔롯데에 입사 이래 프론트, 예약, 판촉 등 다양한 부서에서 10여년간의 업무 경험을 통해 두루 인정받아 이후 레비뉴 매니지먼트, 수익관리 전문 매니저로 경력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수익관리 시스템(IDeaS)을 주도적으로 활용해 시스템 및 데이터 기반의 레비뉴 매니지먼트 문화를 안착하는데 기여, 2022년부터 본사의 레비뉴매니지먼트 팀으로 자리를 옮겨헤드매니저로 수익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체인호텔의 레비뉴 매니지먼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포캐스팅 & 예산

예산과 포캐스팅시 호텔의 당면 과제/문제점



예산과 포캐스팅시 현 한국 호텔이 당면한 문제점

1. 수요 예측의 어려움, 데이터의 질과 활용법
2.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환율의 변동성
3. 시장 경쟁의 심화
4. 인건비/인력 문제/물가 인상
5. 오너의 기대치와 실제 사이의 균형
6. 정치 및 사회적 불안정
7. 테크놀로지의 영향 - 소비자 및 여행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시장 환경의 변화